

전남대학교 졸업생의 취업구조와 지역발전*

Employment Structure of University Graduates and Regional Development:
A Case Study of Chonnam National University

안영진**

요약

오늘날 대학은 지역발전에 여러 가지로 기여하지만, 특히 대학에서 육성된 인재의 지역노동시장으로의 이전은 인적자본의 축적과 함께 지역경제의 경쟁력 확보에 중요하게 작용한다. 본 연구는 전남대학을 사례로 졸업생의 취업에 있어 구조적 특성과 취업지의 분포, 그리고 취업전략을 규명하고자 한다. 전남대학 졸업생의 취업률 추이는 우리 나라 전체 대졸자 취업률을 경향적으로 쫓아가지만, 지역의 취약한 산업구조로 인하여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졸업생 가운데 취업자의 취업지 분포는 (대)도시로의 집중과 광주·전남지역 및 수도권으로의 양극화 현상을 뚜렷이 보여주며, 또한 이들 졸업생의 취업전략에 있어서는 직업적 유연성을 통해 노동시장의 요구에 대처하기보다는 공간적 이동성을 통한 적응을 선호하는 측면이 부각되고 있다. 전체적으로 전남대학 졸업생의 취업과 관련하여 이른바 두뇌유출 양상이 나타나며, 따라서 전남대학이 졸업생을 통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국지적 노동시장의 자질개선에 기여하는 정도는 제한적임을 알 수 있다.

주요어 : 지방대학, 취업구조, 노동시장, 두뇌유출, 지역발전

1. 서론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 나라 고등교육의 목표는 국민들의 높은 교육열에 따라 대학진학 기회를 최대한 제공하는데 맞춰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그 배경에는 한국전쟁 이후 베이비붐 세대의 성장에 따른 대학진학 연령층의 급증과 1960년대 이래 고도 경제성장에 따른 노동력에 대한 꾸준한 수요 확대가 자리잡

고 있었다. 따라서 고등교육기회로부터 소외된 각 지역에 대학을 신설하거나 증설함으로써 지역간 교육격차를 줄이는 동시에 지방에 잠재된 인적자원을 개발하여 국가발전에 동원하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왔다.

그런데 1980년대 중반이후 고등교육체계의 확충을 통해 대량으로 배출된 대졸자의 인력수급과 관련하여 여러 문제점들이 등장하고 있다. 한편으로 학업기회의 제고에 의한 양적 공급의 확대로 대졸자의 취업과 관련된 부작용들이 발생하고 있다. 과거와 달리 국

* 이 논문은 2000년도 전남대학교 학술연구비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전남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전임강사(yjahn@chonnam.ac.kr)

민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대졸자의 실업문제가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더군다나 급변하는 경제상황 하에서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인력과 대학을 거쳐 공급되는 인력간의 불일치 현상이 심화되면서, 대졸자의 실업률은 계속 상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착화되고 있다. 그 결과 최근 들어 대학 재학생의 휴학이 큰 폭으로 늘어나고, 취업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취업유예를 선언하고 각종 자격증 취득에 몰리는 기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또한 취업자의 경우에도 과거와 달리 자신의 교육수준보다 낮은 직무에 종사하는 '하향취업' 현상도 심화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대졸자의 취업률에 있어 지역간, 특히 수도권과 지방간의 격차가 확대되면서, 지방대학 졸업생의 취업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이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진행되어 온 지방대학의 위상저하와 함께 지방대학 졸업생에 대한 차별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박찬석, 2002). 그 결과 고졸자들의 대학진학에 있어 수도권 지향이 뚜렷해지고, 일부 지방대학의 정원 미달사태¹⁾와 함께 지방의 두뇌유출 문제가 대두하고 있다(정진화, 1996; 임정덕 외, 1997).

고등교육기회를 제고함으로써 국민의 대학진학 욕구를 충족시키며 사회발전에 필요한 고학력 인적자원을 개발하고, 나아가 교육기회의 지역격차를 해소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정책과제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차원의 대학교육에 관한 일반적 이해에 따라 그간 추진되어온 대학의 신·증설이 최근 들어 여러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고졸 신입생의 충원이라는 측면에서 대학의 과잉을 둘러싼 논란과 함께 우선적으로 지방대학의 존립문제가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면, 대학을 마친 졸업생의 공급

이라는 측면에서는 대졸 고급인력의 광범위한 미취업 문제와 특정 지역에 있어 '자질초과현상'(over-qualification)²⁾이라는 부정적 결과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대졸자들은 그 어떤 학력집단보다 자신들의 교육수준에 알맞는 직장을 구하고, 직업상의 경력을 쌓아가고자 하는 성향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이 학업을 통해 획득한 자질에 걸맞는 일자리를 일차적으로 대학소재 지역에서 제공받지 못할 경우 취업 기회를 찾아 외지로 통근을 행하거나 기존의 거주지를 기꺼이 바꾸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외국의 오랜 경험에 의하면, 대학교육기관의 확대가 지역차원에서 단순히 교육기회의 공간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을 넘어서서 진정 지역발전과 연계되기 위해서는 대졸자들이 해당 지역에 많이 잔류해야 한다고 지적한다(Fassmann et al., 1997). 즉, 지역발전을 위한 대학의 역할이라는 의미에서 대학의 신·증설에 따른 입지적·경제적 파급효과를 극대화하는 한 방편은 대졸자들을 가능한 한 지역노동시장에 편입시키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왜냐하면 취업을 뒷받침하는 보완책 없이 대학을 특정 지역, 특히 저발전적·주변부적 상황에 있는 지방도시나 농어촌지역에 신설하거나 확충할 경우, 이것이 단기적으로는 지역 고등교육기회의 제고와 연결되고 대학생들을 재학기간 동안 지역에 묶어 놓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바로 대학교육을 통해 얻은 높은 자질에 걸맞는 일자리를 찾아 나서는 대졸자의 외지로의 이출을 조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점과 관련하여 근래에 와서 우리나라에서도 지역발전에 있어 인적자원의 중요성과(고등)교

육의 역할, 그리고 인적자본의 지역간 유출문제에 관한 연구가 미약하나마 이루어지고 있다. 우선적으로는 1960년대 이후 경제발전과정에서 구조화되고 있는 수도권과 지방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을 내생적으로 도모하기 위해서는 지역인재의 육성과 고등교육기관의 적극적인 역할이 관건임을 강조하고 있다(김병규, 1993; 강원사회연구회 2001). 또한 보다 구체적으로는 이러한 논의를 뒷받침하는 현상진단적 연구로서 출신지역별 고교 졸업생의 대학 지망 희망지(노국향, 1997)와 부산지역 고교 우수졸업자의 서울지역으로의 대학진학과 졸업 후 서울잔류 양상(임정덕 외, 1997)을 통해 살펴본 지방 우수두뇌의 유출문제에 관한 분석이 있다. 나아가 이 문제는 지방대학의 위기와 지역발전에 있어 휴먼웨어(humanware)의 확립이라는 맥락에서 '인재지역활당제' 도입에 관한 정책적 논의와 연결되고 있다(Park, 1997; 조명래, 1998). 그렇지만 인적자원 유출에 있어 또 하나의 중요한 유형, 즉 대학진학을 자기 출신지역으로 하더라도 졸업 후 취업으로 인하여 우수 두뇌가 역외의 특정 지역으로 집중되는 현상과 이것이 지역발전에 미칠 영향에 관해서는 아직 이렇다할 만한 체계적인 분석이 없는 실정이다.

이 논문은 대학이 지역사회의 고등교육기관으로서 지역발전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를 파악하고 그 발전방향과 전략을 모색하려는 의도에서 출발한다. 특히 대학의 교육활동을 통한 인재육성기능이 지역사회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데 초점을 두고, 그 긍정적 파급효과 가운데 하나는 대학에서 양성된 인재가 지역사회에 장애 없이 편입되어 지역내 순환이 재고됨으로써 인적자본의 질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장기

적으로 지역경제의 경쟁력도 공고해질 것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 논점을 호남의 거점 국립대학 가운데 하나인 전남대학을 사례로 졸업생의 노동시장에의 진입에 있어 구조적 성격과 취업지의 공간적 분포특성, 그리고 이들의 취업전략의 측면에서 밝혀보고자 한다.

2) 대졸자의 취업구조와 지역발전: 이론적 논의

대학은 오랫동안 학술이론과 방법론을 개발하는 연구와 이를 전수하는 교육을 양대 기능으로 하여 발달해 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대학은 중대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데, '상아탑'으로 표현되어온 전통적인 대학의 이념상이 지식 및 정보사회의 도래와 함께 '혁신 및 기술의 산실'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진리추구라는 내적 가치가 여전히 중요하긴 해도, 사회가 요구하는 실용적 가치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거세어지고 있다. 그래서 많은 대학들은 현실사회의 다양한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는 동시에, 장기적으로 사회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구조개편을 서두르고 부가가치적 경영에 힘쓰고 있다(박영한, 1995; 1998; 天野郁夫, 1999). 오늘날 대학은 다양한 산출(outputs)을 갖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가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봉사기관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산출 가운데 대학의 전통적인 역할과 결부된, 하지만 동시에 사회적 책임과 관련하여 여전히 유효한 것은 대학이 교육기능을 통해 학생들에게 지식을 전수하고, 이들을 육성하여 사회로 배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Luger et al., 1997; Ermert, 1997; 大學研究教育を考ふる會, 2000). 특히 이를 지역발전이라 시각에서 보면, 대학이 시민의 양성과 아울러 급변하

는 경제환경 하에서 지역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혁신을 창출하고 새로운 이념과 사상을 능동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인력을 육성하여 지역사회로 이전하는 것이다(박영한 외, 2001).

현대 사회에서 창조와 혁신과 관련된 대졸자의 발전잠재력은 국가 및 지역경제의 경쟁력 제고와 이니셔티브, 내생적 발전과정에 결정적인 의미를 지닌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지금까지의 경제성장은 거의 예외 없이 고학력 대졸자 비중의 꾸준한 상승으로 표현되는 인적자본의 양질화를 수반해 왔다. 그런데 우리 나라의 경우 최근 양적 팽창 위주의 고학력화가 오히려 인력수급의 불균형을 야기하고 취업난에 따른 청년층 인구의 유향화를 심화시킴으로써 인적자본의 경쟁력은 저하되고 있다. 더욱이 대졸자의 노동시장에 있어 출신 대학에 따른 단층화가 현저한 또 다른 특성이 부각되고 있다. 즉, 명문대학 졸업생에 비하여 중·하위권 수도권 대학 졸업생의 실업이 심각하고, 지방대학 졸업생의 실업은 이보다도 더 심각하다는 것이다(정진화, 1996). 따라서 그 동안 대학의 신·증설을 바탕으로 한 고등교육기회의 꾸준한 확충과 그 귀결인 고학력화는 국민의 대학교육에 대한 높은 열망을 충족시키는 데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했는지 모르지만, 대졸 인력의 균형개발과 최적활용, 그리고 지역발전이라는 측면에서는 적잖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지방대학의 경우 해당 지역의 산업구조와 연계가 부족하고 인적자본의 축적과 그 활용에 있어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가 떨어진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 점에서 우리는 대졸자들이 지역발전을 유도하고 지역의 혁신잠재력을 제고하는데 과연 얼마나 기여하는가 하는 논제를 제기할 수 있다. 지역의 경제적, 기술적, 그리고 정치·사회적 혁신을 유발하기 위해 우선 인적자본의 축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가? 아니

면 이러한 발전은 지역적으로 활용 가능한 고급인력의 잠재력과 무관한 것인가? 물론 전통적으로 성장력이 집중되어온 (대)도시의 중심부와 정체 내지 낙후를 거듭하는 주변부 사이에는 지역정책을 통한 개입에도 불구하고 항상 불평등한 교환 및 이전관계가 성립해 왔다. 따라서 오늘날 많은 주변부는 지역발전과 관련하여 수동공간으로 지칭된다. 이들 지역은 취약한 산업구조와 외부통제에 의해 특징지워질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두뇌유출, 곧 인적자본과 관련한 선별적 유출에 의해 규정되고 있다(Fluechter, 1990; Rolfes et al., 1990; Kwon, 2001). 이러한 맥락에서 대학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강화하는데 어떻게 작용하는가 하는 질문을 던질 수 있다. 아니 보다 정확한 질문은, 대졸자들이 지역발전에 '모터'로 작용하며, 대학을 둘러싼 지역노동시장에 어떤 승수효과를 유발하는가? 아니면 대졸자들이 장기적으로 지역의 인적자본의 제고 내지 자질(내지 교육)수준을 도리어 떨어뜨리고 있는가? 대졸자 중 타 지역의 흡인력에 대응하여 독자의 지역적 지향성을 명확히 하는 이른바 '지역인' (homo regionalis)이 얼마나 되는가?(Wenzel, 1995)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대학의 교육활동을 통한 인적자본의 형성과 이에 따른 지역발전의 긍정적인 파급효과와 관련된 주된 관심사는 대학이 과연 대학 소재 도시 및 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지역노동시장에 어떤 역할을 수행하며, 당해 지역으로부터의 두뇌유출을 어느 정도 저지하는가, 아니 오히려 외부로의 두뇌를 부추기는가? 하는 점이 될 것이다. 자연히 지리학적 관점에서 주목할 점은 학생들의 공간적 흐름, 즉 대학생들의 출신지가 어디이며, 졸업 후 어디에 취업하는가 하는 것이다(川田力, 1993; Harder, 1995; Scherff, et al., 1993; Beissinger, 1997). 일반적으로 넓은 지역으로

부터 재능 있는 학생들을 유인하고 이와 동시에 풍부한 취업기회를 제공하는 노동시장을 끼고 있는 대학은 다른 어떤 대학보다 공간경제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이와 반해 주로 국지 또는 지역수준에서 신입생을 받아들이며, 학업을 마친 졸업생들이 보다 나은 취업기회를 찾아 당해 지역을 떠나는 대학이 존재한다면, 이런 성격의 대학은 궁극적으로 두뇌유출을 심화시키고 지역발전에도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결국 대학이 노동시장의 측면에서 지역발전에도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에 관심을 가질 때, 대졸자 가운데 대학 소재지역에 취업하거나 잔류하는 비중이 어떻게 되는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Meusburger, 1998). 대학이 위치한 지역이나 도시에 취업한 대졸자들의 비율과 이들이 당해 도시 및 지역에 머물러 있는 기간은 여러 요인에 달려 있을 것이다. 이는 특히 타 지역과 비교하여 대학 소재지역에서 어떤 양과 어떤 수준의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에 크게 좌우될 것이다. 또한 취업을 희망하는 대졸자의 자질이 전문화되면 될수록, 직업탐색의 지리적 범위도 그만큼 커지고 이들이 해당 지역에 잔류할 가능성은 그만큼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3) 연구방법 및 자료

본 연구는 이러한 논의를 배경으로 하여 전남대학교 졸업생들의 일반적인 취업 특성과 취업지의 분포상황에 따른 지역과의 상호관련성, 그리고 취업행동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문에 해당하는 경험적 분석과 설명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질 수 있다. 첫째, 전남대학교 졸업생의 취업현황과 그 추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전국 및 지역차원에서 대졸자의 취업률을 고찰하고, 이와 동시에 전남대학교 졸업생의

취업과 관련된 일반 특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둘째, 졸업생들의 취업지와 그 공간적 분포패턴을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전남대학교 졸업생의 취업지의 지역적 분포에 있어 지역권의 성격과 취업기간에 어떤 연관성이 존재하는가를 논의하고자 한다. 셋째, 전남대학교 졸업생들의 노동시장에의 진입과 관련한 행동전략을 파악하고, 또한 이와 관련된 일반적인 경향을 설명해 보고자 한다.

우리 나라에서는 본 주제와 관련하여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통계자료는 대단히 부족하며, 따라서 연구자료의 제약이 크다. 이점을 감안하여 본 연구는 우선 대학에서 발간되는 2차적 통계자료와 각종 내부자료를 통해 취업과 결부된 현황과 실태를 자세히 파악하고자 했다. 특히 2001년 3월말을 기준으로 실시된 2001년도 전기 졸업생들의 학과 및 학부별 취업상황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졸업생의 취업지를 각 학과 및 학부의 행정조교를 통해 조사하였다. 이와 더불어 졸업생들의 취업동기와 취업행동 및 전략 등의 구조적 특성과 질적 측면은 파악하기 위해 2001년 10월에서 11월 사이에 이들 졸업자를 대상으로 단과대학별로 표본을 설정하여 전화를 통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 전남대학교 졸업생의 취업특성

1) 취업률 추이

최근 들어 대졸자의 취업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렵다. 2001년 9월 현재 우리 나라 평균 실업률이 3%대에 머물고 있어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대졸이상(전문대 포함) 실업률은 5.7%를 기록하고 있다. 더욱이 취업시즌을 맞아 전국적으로 대졸실업자

표 1. 우리 나라 대졸자의 취업자 및 취업률 추이

(단위: 명, %)

구 분	졸업자	진학자	입대자	취업자	기타*	취업률**
1965	36,180(100.0)	1,036(2.9)	5,762(15.9)	12,564(34.7)	16,818(46.5)	42.8
1970	23,515(100.0)	1,091(4.6)	2,961(12.6)	13,743(58.4)	5,720(24.3)	70.6
1975	33,610(100.0)	2,179(6.5)	4,076(12.1)	19,635(58.4)	7,720(23.0)	71.8
1980	49,735(100.0)	6,088(12.2)	4,796(9.6)	28,349(57.0)	10,502(21.1)	73.0
1985	118,581(100.0)	12,278(10.4)	13,163(11.1)	48,552(40.9)	44,591(37.6)	52.1
1990	165,916(100.0)	12,782(7.7)	7,830(4.7)	79,975(48.2)	65,329(39.4)	55.0
1995	180,664(100.0)	16,500(9.1)	4,326(2.4)	97,290(53.9)	62,548(34.6)	60.9
2000	214,498(100.0)	26,000(12.1)	2,225(48.7)	104,371(48.7)	81,902(38.2)	56.0

주 : *기타는 무직과 일부의 미상을 포함; ** 취업률 = 해당연도 취업자/졸업자 - (진학자+입대자) × 100.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교육통계연보 각년도.

12만명과 대학 4학년(졸업예정자) 28만명이 6만개의 일자리를 놓고 경쟁하고 있을 정도로 고학력 인력의 실업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조선일보 2001.11.7자). 이러한 취업대란은 일차적으로 기업의 노동력 수요가 크게 후퇴한 점에 일차적 원인이 있으나, 많은 중소기업들의 심각한 구인난에서 알 수 있듯이 그 근처에는 구조적인 문제가 자리잡고 있다. 무엇보다도 대학진학률의 꾸준한 상승으로 인하여 대졸자의 취업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식 및 정보시대가 도래하면서 산업계의 인력 수요체계는 변하고 있지만 대학의 교육인력 공급체계는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데서 오는 수급상의 질적 불균형 내지 불일치 문제가 심대하게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송태정, 2001).

지난 1965년 이후 대졸자의 취업률을 살펴보면(표 1), 시기별로 등락을 거듭해 왔음을 알 수 있다. 1960년대 중반에는 취업률이 40%대의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었는데, 이는 해방 이후 60년대 초까지 대학교육이 급격히 팽창한 반면, 사회적 수요는 대졸자들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정도까지 성장하지 못하였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대졸 고급인력의 초과공급과 그로 인한 실업률의 상승은 결국 정부에 의해 대학 증원이

억제되면서 1970년대에는 취업률이 70%대까지 상승하였다. 특히 대학의 인력공급 증가가 고도 경제성장에 고등인력에 대한 수요증가와 상응하게 됨으로써, 1970년대 전반에서 80년대 초반까지 취업률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하지만 1980년대 초에 도입된 졸업정원제와 그로 인한 대학 진학자의 급격한 팽창은 80년대 중반이후 이들이 졸업하면서 노동시장에 커다란 충격으로 작용하였다. 대학을 졸업하고 노동시장으로 진입하는 인력규모가 일시에 증가하게 됨에 따라, 이들 신규 대졸자의 취업률은 70%대에서 50%대로 급락하였다. 급격한 공급확대에 따른 이러한 현상은 졸업정원제 세대의 배출이 지속된 1980년대 후반까지 이어지다가, 90년대에 들어서면서 다소나마 회복세를 보이게 되었다. 그렇지만 이러한 회복세도 오래가지 못했다. 주지하다시피 1997년 말의 외환위기 이후 대졸자의 취업률은 가파르게 하락하면서 최악의 취업난이 발생하였다. 1996년 63.3%, 97년 61.8%이었던 취업률이 외환위기와 함께 98년 50.5%, 99년 51.3%로 급락했다가 2000년 56.0%, 2001년 56.7%로 미소하게나마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표 2. 전남대학교 졸업생의 진로 및 취업률 추이*

(단위: 명, %)

연 도	졸업자(A)	취 업 자				취업대상자(F) =A-(C+D)	취업률 (B/F)
		순수취업 (B)	진학 (C)	군입대 (D)	소계 (E)		
1982	1,630	946	259	151	1,356	1,220	77.5
1983	1,969	1,018	251	183	1,452	1,535	66.6
1984	2,410	898	220	167	1,285	2,023	44.4
1985	3,141	1,053	254	217	1,524	2,670	69.1
1986	3,899	1,354	238	257	1,849	3,404	39.8
1987	4,075	1,512	226	301	2,039	3,548	42.6
1988	4,541	1,575	185	197	1,957	4,159	37.9
1989	4,450	1,525	246	223	1,994	3,981	38.3
1990	4,044	1,474	243	171	1,888	3,630	40.6
1991	3,951	1,577	220	213	2,027	3,518	44.8
1992	3,893	1,730	193	208	2,131	3,492	49.5
1993	3,725	1,471	249	163	1,883	3,313	44.4
1994	3,452	1,509	253	164	1,926	3,035	49.7
1995	3,424	1,822	244	166	2,232	3,014	60.5
1996	3,428	1,888	316	139	2,343	2,973	63.5
1997	3,917	2,143	422	136	2,701	3,359	63.8
1998	3,715	1,420	376	106	1,902	3,226	44.0
1999	3,521	1,261	411	98	1,770	2,834	44.5
2000	3,064	1,151	283	87	1,521	2,667	43.2
2001	3,093	1,184	350	88	1,622	2,622**	45.2

주 : *90년까지는 매년 2월말 조사자료이며, 그 후는 매년 3월말 조사자료임; **이상 34명 포함.
 자료 : 전남대학교 통계연보 각년도.

한편 대졸자의 취업률에 있어 중심과 주변간의 격차가 뚜렷하다. 수도권대학 졸업생의 취업률이 1996년 71.5%, 97년 67.6%, 98년 54.5%, 99년 54.1%, 2000년 60.3%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지방대학 졸업생의 취업률은 각각 58.0%, 58.1%, 50.5%, 51.3%, 56.0%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수도권대학과 지방대학 졸업생의 취업률 격차가 여전히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지역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2000년 현재 서울 60.4%, 인천 60.7%, 경기 60% 등 수도권대학의 취업률이 전국 평균을 상회하고 있으나, 광주 48.7%,

전남 49.4%를 비롯하여 전북 44.8%, 경북 51.9%, 부산 52.1%, 대구 52.3% 등 지방대학의 취업률은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며, 이들 졸업생의 취업난은 가중되고 있다. 특히 2000년 현재 전남대 졸업생의 취업률은 조선대, 목포대, 동신대 등 광주와 전남지역 주요 대학과 마찬가지로 전국 평균 56%을 훨씬 밑도는 최하위권을 기록하고 있다. 전남대 취업률 43.2%는 목포대 39.0%와 동신대 42.6%보다는 높으나, 조선대 47.1%, 호남대 59%, 광주대 49.4%, 순천대 45.6%, 여수대 62.6%, 대불대 67.5%, 목포해양대 83.1%보

표 3. 2001년 전남대학교 졸업생의 직종별 취업현황

(단위: 명, %)

단과대학	졸업자	일반기업									취업률	
		일반기업	국영기업	금융기관	연구기관	언론출판	공무원	교직	특수직	자영업타		소계
가정대	110	50	-	-	-	-	1	2	-	-	53	49.5
경영대	312	73	4	60	-	-	8	-	-	24	169	61.2
공과대	693	214	1	4	3	3	7	2	-	16	250	45.6
농과대	334	65	6	8	4	2	6	-	1	28	110	38.6
법과대	95	1	-	1	-	-	4	-	-	2	8	9.5
사범대	274	4	-	1	-	2	-	47	-	35	89	34.6
사회대	131	11	1	2	1	3	2	4	1	6	31	29.8
수의대	57	2	-	-	1	-	-	1	17	-	21	72.4
약학대	73	-	-	-	-	-	-	-	22	-	22	36.7
예술대	191	12	-	1	-	1	5	-	-	42	61	38.9
의과대	219	-	-	-	-	-	-	1	196	-	197	91.2
인문대	255	24	1	4	-	4	2	2	-	16	53	22.7
자연대	274	32	1	3	8	1	3	1	9	6	64	30.9
치과대	74	-	-	-	-	-	-	-	56	-	56	96.6
합계	3,093	488	14	84	17	16	28	60	302	165	1,184	45.2

자료 : 전남대학교 장학담당관실 취업현황조사 재구성

다는 낮은 수준이다.³⁾

지난 20년간의 전남대 졸업생의 취업률 추이를 보면(표 2), 해마다 편차가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1980년대 초반 70%대 전후의 높은 취업률을 유지하다가 그후 가파르게 하락하여 90년대 중반까지 40%대의 매우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199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60%대를 회복하였으나, IMF 한파로 인하여 취업률은 다시 40%대로 떨어졌다. 2001년 3월 말 현재 전남대학 졸업생의 취업률은 45.2%를 조사되었다. 따라서 전남대의 경우 지난 20년간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낮은 취업률과 아울러 전반적으로 심각한 취업난을 겪어왔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일차적으로 광주 및 전남지역의 취약한 산업기반과 고용시장의 영세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나아가 수도 권대학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방대학 졸업생의 진입구조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기업의 구조조정과 국내외의 경기침체로 인한 기업체의 대졸자 채용규모가 크게 줄어들고 지식 및 정보사회형 고용구조로 바뀌면서 상대적으로 이에 대한 적응력이 떨어지는 지방대학 졸업자들이 취업시장에서 한층 더 고전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취업패턴

전남대는 1952년 1월 5개 대학을 종합하여 국립전남대학교로 발족한 뒤, 1953년 3월 제1회 학위수여식에서 학사 48명을 처음으로 배출하였다. 그후 대학체제의 확대·개편과 입학증원의 꾸준한 증가로 졸업생 수도 해마다 늘어났다. 2001년 2월 제49회 학위수여식에서 학사 3,100여명을 배출함으로써, 지난 50년간 총 91,300명의 학부생들이 전남대학을 거쳐갔다. 2001년 2월에 학부를 졸업한 3,093명의 졸업생 중 3

월말에 실시된 취업현황 조사에서 순수취업자는 1,184명으로 취업률은 45.2%로 나타났다. 이들의 취업상황 및 취업률과 관련하여 몇 가지 경향을 지적할 수 있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같은 졸업생이라고 할지라도 성별과 전공분야에 따라 축적된 인적자본의 성격이 다르고 사회적 평판과 수요도 다르다면, 이에 따라 대졸자의 취업률도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여줄 것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다.

우선 남녀 졸업자간의 취업률을 살펴보면, 남학생의 취업률이 48.5%로 조사된 반면, 여학생의 경우는 42.6%로 남학생에 비해 6.2%포인트 가량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처럼 여학생의 취업률이 남학생들보다 저조한 것은 일부 자발적인 취업포기를 포함하여 대졸여성의 취업여건이 전반적으로 열악하고 많은 장애가 존재함을 의미하며, 2001년 전남대 졸업생의 54%인 1,674명이 여학생임을 고려한다면 고급 여성인력의 유희화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대졸 인력의 급격한 팽창에 따른 충격으로 대졸자의 취업여건이 악화되면서 그 파장이 상대적으로 여성들에게 보다 집중되는 우리 나라의 일반적인 고용상황이 전남대의 경우도 예외가 아님을 알 수 있다(전남대학교 학생처, 1992). 둘째, 전체적으로 취업자의 진출분야는 일반기업이 가장 높은 비중(41.2%)을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 의사·수의사·약사 등 자격증을 갖고 대학문을 나서는 동시에 진로가 보장되는 특수직(25.5%), 그리고 자영업 및 기타(13.9%) 등이 뒤를 잇고 있다(표 3). 자영업의 경우 창업을 통한 취업보다는 부모의 가업을 물려받거나 이에 의탁하는 사례가 적지 않으며, 기타의 경우에는 각종 학원의 강사 등 비정규 일시직이나 시간제로 종사하는 사례가 대부분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금융기관과 교직도 각각 7.1%와 5.1%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영기업이나 공무원, 연구

및 언론기관에 취업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다. 이 점은 이들 직종의 취업기회가 극히 제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부분적으로 학부 졸업자들이 준비 없이 바로 취업하기에는 자격요건이 다소 높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셋째, 이런 맥락에서 취업실태를 단과대학 및 계열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전공계열에 따라 편차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의학계열에 속하는 의대와 치대가 각각 90%를 상회하는 최고의 취업률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수의대와 경영대가 따르고 있다. 그리고 가정대학과 공과대학이 각각 49.5%와 45.6%의 취업률을 보여주며 전남대학 평균치를 상회하고 있다. 이들 대학의 졸업생들은 이른바 실용학문을 수학한 경우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사회적 수요가 비교적 높기 때문에 취업여건이 여타 단과대학의 졸업생들보다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반면 기초학문에 해당하는 인문대, 사회대, 자연대는 일반적인 이해와 일치하듯 매우 저조한 취업률을 보여주고 있으며, 사범대와 농대, 예술대 등도 전남대학 평균치에 미치지 못하는 취업률을 나타내고 있다. 약학대학 졸업생들의 취업률이 의외로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사회계열에 속하는 법대의 취업률은 9.5%로 전남대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이는 졸업과 동시에 취업을 선호하기보다는 고시 등 각종 시험준비에 매진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함께 단과대학의 전공계열 성격이 말해주듯, 대학별 졸업자의 특정 직종으로의 집중도가 전반적으로 현저히 부각되고 있다.

3. 전남대학교 졸업생의 취업지 분포

교육투자를 통하여 인적자본을 형성하고 이를 통해 연계되는 직업은 개인적으로 경제적 수입의 원천으로

서 생활의 기초가 되지만, 사회적으로는 사회참여와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된다. 누가 어떤 직업을 선택하느냐에는 다양한 요인이 작용한다. 또한 그 취업지를 어디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예외가 아니다. 특히 이 경우 분명하고도 보편적인 공간상의 선호가 존재한다. 이것은 노동시장의 일반적 여건 이외에도 노동력에 대한 사회적 수요를 반영하는 일자리의 양과 질에 있어 지역차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취업지에 대한 선호는 여러 부문에 걸쳐 기능과 시설물의 공간적 배치로 표현되듯이 지역적 불균등을 함께 규정하는 지역체계와 구조, 그리고 그 가운데서 정형화되는 특정 인구집단의 공간적 지향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이

러한 현상은 고학력 대졸자의 경우 특히 현저하다. 이렇듯 직업과 함께 취업지의 선정문제는 개인의 생애를 결정한다는 점에서뿐만 아니라 균형적인 지역발전이라는 관점에서도 중요하다(川田 力, 1993; 北村修二, 1997).

1) 취업지의 공간적 특성

대학이 지역발전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와 관련하여 대졸자의 취업지가 공간적으로 어떤 분포특성을 보여주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다. 여기서 먼저 대학의 인적(내지 자질)이전 이 공간적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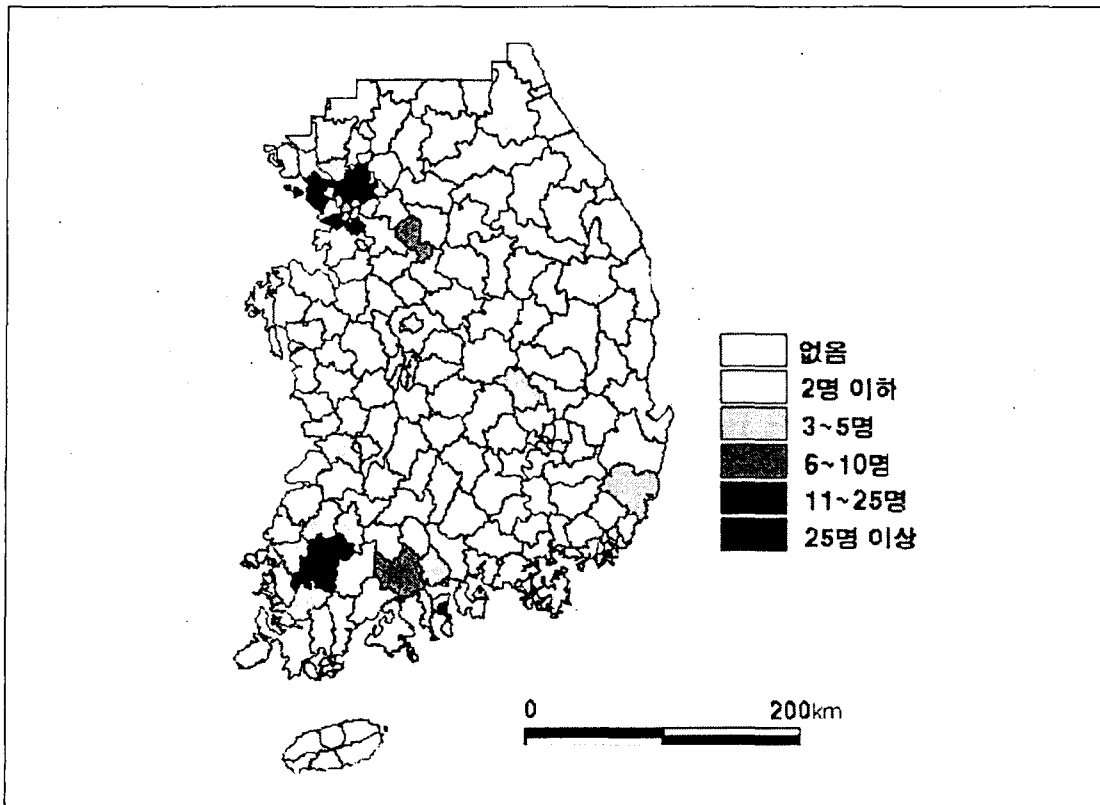


그림 1. 전남대학교 졸업생 중 취업자의 취업지 분포(2001년)

로 어떤 패턴을 보이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전남대학교 졸업생의 취업지를 자세히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01년 2월 학업을 마친 졸업자 중 신규 취업자 1,184명 중 취업지가 파악된 1,035명의 취업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그림 2와 표 4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취업지가 파악된 1,035명 중 거의 절반에 가까운 505명(48.8%)이 대학 소재 지역인 광주광역시에 취업한 것으로 밝혀졌다. 다음으로 서울이 두 번째로 큰 취업지(34.6%)로 조사되었다. 그런데 기대와 달리 광주를 제외한 전남은 취업지로서 그다지 높은 비중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1,035명 중 전남의 시·군에 취업한 졸업생은 총 92명(전체의 8.8%)에 불과하다. 이어 서울을 제외한 경기와 인천의 수도권이 각각 64명과 18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7.9%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광주 및

전남과 인접한 전북지역에 취업한 졸업생이 13명으로 파악되었고, 충청·강원·경상이 각각 20명, 5명, 9명으로 밝혀졌다. 특히 대구와 제주, 그리고 또한 외국에는 단 한 사람의 졸업생도 취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물론 직종에 따라 취업지의 공간적 분포에 적지 않는 편차가 존재한다.

일반기업의 경우 역시 취업기회가 풍부한 수도권으로의 집중도가 매우 높으나, 여타 지역에서는 수적으로 미미한 동시에 분산적인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어 특수직의 경우 광주와 더불어 수도권인 서울과 인천, 그리고 경기의 집중도가 높는데, 이는 전술한 바와 같이 공인자격증에 의한 차별 없는 진입조건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자영업과 기타의 경우 광주에의 집중도가 대단히 높으며, 사범대 출신의 교직의 경우에도 이와 비슷한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표 4. 전남대학교 졸업생 중 취업자의 직종별 취업지 분포(2001년)

구 분	일반기업	국영기업	금융기관	연구기관	언론출판	공무원	교직	특수직	자영업	기타	소계
광주	165	4	39	9	7	12	26	143	33	67	505
서울	173	4	36	-	1	6	1	77	-	1	309
전남	38	2	6	2	-	9	6	9	5	15	92
경기	42	-	-	-	-	-	5	16	-	1	64
인천	4	-	-	-	-	-	-	14	-	-	18
강원	-	-	-	-	-	-	-	5	-	-	5
충남	3	-	-	-	-	-	1	5	-	-	9
대전	1	-	-	2	-	-	-	-	-	1	4
충북	6	-	-	-	-	-	1	-	-	-	7
경북	4	-	-	-	-	-	-	-	-	-	4
대구	-	-	-	-	-	-	-	-	-	-	-
경남	-	-	-	-	-	1	-	-	-	-	1
부산	-	-	-	-	-	-	-	1	-	-	1
울산	2	-	-	-	-	-	-	-	-	1	3
전북	3	-	-	-	-	-	1	9	-	-	13
제주	-	-	-	-	-	-	-	-	-	-	-
합계	441	10	81	13	28	28	41	279	38	86	1,035

자료 : 필자조사.

이러한 취업지의 분포를 통해 우리는 전남대학 졸업생의 취업지와 관련된 몇 가지 공간적 특징을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첫째 취업지의 대부분이 도시지역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다수 취업자들이 대도시 및 시(市)부의 일자리를 선호하는 반면, 군(郡)부에 있는 일자리를 얻은 경우는 소수에 불과하다. 군부의 농촌지역에 취업한 경우는 대개 전남에 한정되며, 일부 특수직이나 공무원, 교직 등이 이에 관련된 주된 직종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사실은 대졸자들이 고크력자로서 일정한 자질을 갖추고 있으므로 이들에게 적당한 일자리가 기본적으로 (대)도시지역에서 제공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해된다. 이와 더불어 산업도시(예컨대 여수·여천, 수원, 안산, 이천, 청주, 구미 등)들이 많은 졸업생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되는데, 이는 경제구조와 대졸자 취업지간의 상관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둘째, 전남대학 졸업생의 광주(및 전남지역)에의 취업률이 매우 높고, 또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의 취업비중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취업지가 이들 두 지역에 극히 편중되는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이는 대학 소재지역의 노동시장권이 라고 할 수 있는 광주 및 전남지역의 경우 전통적으로 취약한 산업구조로 인하여 대졸 인력의 취업기회가 양적으로 제한되어 있다고 해도 전남대학 출신자에 대한 지역사회의 높은 평판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반면 또 하나의 주된 취업지가 파악되고 있는 수도권의 경우에는 우리 나라에서 가장 폭넓고 다층적인 노동시장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대 출신인 전남대학 졸업생에 대한 유·무형의 차별과 편견이 있을지라도 결코 넘을 수 없는 진입장벽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셋째, 신규 취업자의 취업지 분포가 지역적으로 또

다른 불균등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영남지역에 취업한 졸업자수는 10명 이하의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사실이다. 이런 점에서 광주와 전남, 그리고 서울이 전남대학 졸업생의 취업 선호도(選好度)가 높은 지역에 해당한다면, 부산과 대구, 그리고 경상남·북도는 그 경원도(敬遠度)가 높은 지역으로 파악된다. 이는 전남대학 졸업생의 취업지 분포에서 비중은 높지 않으나 다수의 졸업생들이 전북과 충남지역을 취업지로 선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추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에는 이들 지역의 지리적 근접성이 적잖게 작용하였겠지만, 무엇보다도 주된 취업지향 내지 선호지역인 광주와 수도권에 있는 지역으로 직업탐색에 있어 일종의 통로지역으로서 인지된 결과가 아닌가 사료된다.

2) 출신지와 취업지 비교

이상에서 살펴 본 취업지의 공간적 분포패턴과 관련하여 부분적으로 시현되고 있는, 전남대학 졸업생의 지역노동시장으로의 인적자본의 이전, 그리고 역으로 인재유출 문제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졸업자의 대학 입학 이전의 출신지와 취업지를 상호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⁴⁾ 다만 자료의 제약으로 말리암아 2001년 졸업생(취업자)의 출신지역을 일일이 조사·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편의상 이들의 출신지를 이들이 입학한 시점인 1997년을 기준으로 하여 조사된 출신지역 실태의 평균치를 인용하였다. 당연히 2001년 2월 졸업생들이 정상적인 졸업이었다면, 1997년 3월에 입학하였을 것이나 학업 중 군복무나 휴학 등의 학적변동 상황이 빈번함으로 인하여 입학자와 졸업자의 출신지 평균치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1997년 입학생 가운데 설문조사에 응한 1,748명의 출신지, 다시 말해 전남대

표 5. 전남대학교 졸업생의 취업지와 출신지 비교

(단위:%)

구 분	광주	전남	전북	서울	인천·경기 ·강원	대전·충청	부산·대구 ·경상	제주	계
1997년 입학생의 출신지 (N=1,748)	69.1	24.2	3.4	1.4	0.8	0.5	0.4	0.2	100.0
2001년 졸업생의 취업지 (N=1,035)	48.8	8.9	1.3	29.9	8.4	1.9	0.8	-	100.0

자료 : 전남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1997: 5) 및 필자조사

학의 취학권(Einzugsbereich)⁵⁾은 광주와 전남에 거의 절대적으로 편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광주가 69%, 전남 시·군부가 24%로 전체적으로 93%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 나라의 통상적인 지역구분에 의거하여 서남권에 해당하는 전북까지 여기에 포함시키면, 그 비중은 무려 97%에 이르게 된다. 반면 이들 지역을 제외하고는 수도권이 2.2%, 중부권이 0.5%, 영남권이 0.4%에 불과한 실정이다(표 5).

이점은 전남대학이 나름의 전통과 명망을 지닌, 호남권의 거점 국립대학이자 지방대학으로서의 특성과 위상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대학소재 지역인 광주의 비중이 대단히 높다는 점은 또 다른 측면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최근 대학진학과 관련된 입학생 부모의 사회계층적 배경이 중산층으로 집중되고 지역적 출신배경도 대도시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일반적인 양상이 전남대학 입학생의 출신 배경에도 분명 투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여튼 이러한 출신지의 분포는 위에서 언급한 취업지의 분포와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출신지의 경우 대학 소재지역인 광주와 전남지역에의 편중현상이 극히 현저하다면, 취업지는 오히려 균등분포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광주 및 전남 출신의 교육받은 고학력 인력들이 지역노동시장에 투입 내지 이전

되지 못하고, 타 지역으로 이출되는 비중이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다. 적어도 광주와 특히 전남지역은 양적 측면에서 두뇌유출을 격심하게 겪고 고급 인력의 '손실자'의 처지에 놓여 있다면, 수도권은 '이득자'에 해당하는 것이다. 결국 광주 및 전남지역의 많은 고교 졸업생들이 대학교육을 위해 서남권의 대표적 중심도시인 광주의 전남대학으로 진학하지만, 학업을 마친 후 광주에 잔류하거나 출신지역으로 되돌아가는 비율이 전반적으로 저조하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그 일차적인 원인을 광주 및 전남지역이 대학을 마친 전문인력을 자체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노동시장상의 용량이 크게 떨어진다는 점에서 찾아 볼 수 있는데, 이는 산업 및 경제적 측면에서 일종의 주변부로 해당하는 이 지역의 구조적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이 누적된 결과를 부분적으로 광주 및 전남의 취업자 중 고학력자의 비중이 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는 사실에서도 읽을 수 있다(홍성우 외, 1998).

4. 전남대학교 졸업생의 취업전략

오늘날 대졸자들은 학업을 마치고 취업세계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지난한 노력과 아울러 제한된 직업상의 지위를 감수해야 한다. 대졸자들은 일자리를 얻기 위

해 다양한 취업전략을 구사할 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하는 행동패턴을 보여주고 있다(Teicher et al., 2000). 최근 노동시장의 성격이 급변하면서, 구직자들은 물론이고 이미 취업하고 있는 사람들조차 노동시장의 제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유연성(flexibility)에 초점을 맞춘 행동양식을 강화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유연성은 취업과 관련하여 두 가지 관점에서 파악될 수 있다. 그 하나가 노동력의 유연성 내지 유연한 상황대비라고 한다면, 다른 하나는 기업이나 고용주의 유연성 내지 이들의 자질에 대한 요구와 채용정책상의 유연성이라는 것이다. 특히 대졸자의 취업에 관한 본 연구의 논의와 관련된 좁은 의미의 유연성을 말하는 전자의 경우, 취업이나 실직에 대비하여 부가적인 자질을 획득하거나 비정규직과 한시고용을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직업상의 제한된 지위나 임금, 커리어기회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 등이 직업적으로 중요한 행동전략에 해당한다.⁶⁾ 이와 더불어 거주지의 교체를 수반하는 공간적 이동성도 노동시장에 있어 노동력의 유연성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Wenzel, 1995; Fassmann et al., 1997). 대졸자의 취업과정에서 이러한 행동전략이 어떤 의미를 지니느냐는 다양한 지표를 통해 검증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는 전남대학 졸

업생의 취업전략을 “취업을 위해 어떤 일자리도 관계 없다”고 하는 직업적 유연성과 “취업을 위해 어느 곳으로든 이주할 수 있다”는 공간적 이동성에 대한 대비 여부 또는 의향을 중심으로 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전화 인터뷰를 통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검토해 보면, 우선 노동시장상황에 눈높이를 맞추는 등 내용적인 적응보다 거주지교체를 통해 노동시장의 요구에 대처하려는, 다시 말해 일자리를 얻고자 하는 졸업자의 비중이 높음을 알 수 있다(그림 2). 응답자의 45.5%는 노동시장의 요구에 거주지교체로 통해 기꺼이 대처하고자 하는데, 공간적 이동을 거의 또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졸업생의 비중은 18.3%에 불과하다. 후자의 경우 대졸자들이 일자리 탐색반경을 대학 소재지인 광주 및 인접 지역에 제한하고 있음을 말해 준다. 이와 달리 평소에 갖고 있던 직업관을 접거나 직장과 직종에 대한 기존의 기대수준을 낮추면서까지 취업하려는 졸업생들은 상대적으로 적은 비중으로 조사되었다. 즉, 직업이나 직종과 관련된 유연한 행동전략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응답자의 비중은 38.5%에 그치며, 유연성이 떨어지는 응답자도 무려 33.5%에 달하고 있다. 따라서 최근 들어 대졸자의 취업난의 원인으로 자주 지적되고 있는 대졸자의 생산적 기피와 대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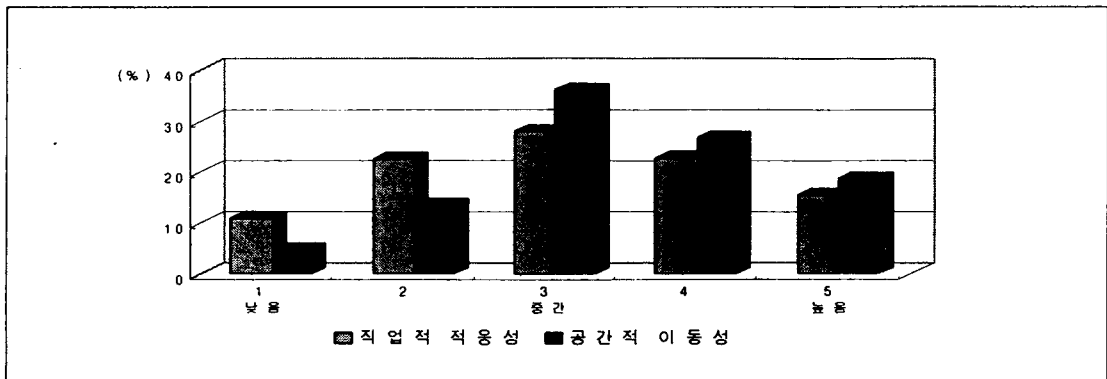


그림 2. 전남대학 졸업생의 주요 취업전략

선호, 그리고 현실을 고려하지 않는 임금요구 등과 같은 직업적 유연성의 결여문제가 전남대학 졸업생의 경우에도 부분적으로 발견된다. 이러한 취업전략을 세분하여 검토하기 위해서는 전공분야, 즉 단과대학별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림 3). 이미 살펴보았듯이 단과대학별로 학업을 마친 후 진로 및 취업유형(직종)이 다르고 또한 결과적으로 취업률에 있어서도 적잖은 차이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취업전략도 대학 내지 계열별로 다르다는 점에서 논의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단과대학별로 위에서 언급한 두 지표의 평균값은 좌표평면상에 조합하여 표시해 보면, 물론 산포 특성과 관련하여 군집화가 현저히 부각되지 않고 있으나 공간적 이동성이 강한 단과대학과 직업적 유연성이 높은 단과대학, 그리고 두 지표에서 공히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단과대학을 파악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는 직업이나 직종의 선택에 있어 유연한 행동전략을 보여주는 응답자가 동시에 거주지교체를 수반하는 공간적 이동도 기꺼이 수용하는 경우는 낫다. 오히려 이 두 유형의 행동전략 중 어느 하나를 대안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전자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취업률이 낮은 단과대

학 - 예외적으로 가정대학을 포함한 사범대, 사회대, 인문대, 자연대 등 - 의 응답자들이 주로 해당한다. 또한 위에서 언급한 일반적 경향과 달리 공간적 이동성보다 직업적 유연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대학들도 있는데, 사회대, 예술대, 인문대, 자연대 등이 이 경우에 속한다. 따라서 졸업생의 행동전략에 있어 전공, 다시 말해 대학 특유의 상호관련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노동시장에서 취업기회가 제한되면 될수록, 노동시장에서 내용상(예컨대 직종이나 안정성)-지위상(예컨대 임금수준)의 적응으로서 직업적 유연성을 그만큼 더 선호한다는 점이다(대표적으로 사회대, 약학대, 인문대, 자연대, 인문대 등). 그리고 노동시장에서 취업기회가 양호하면 양호할수록, 거주지의 교체, 곧 공간적 이동의 행동전략에 의존하는 경향이 그 만큼 강하게 나타난다(대표적으로 가정대, 경영대, 공과대 등). 그러므로 취업전망이 양호할 대졸자의 경우 대학 소재지역을 벗어나 타지로의 이주의향이 강하다면, 이와 동시에 직업적으로도 유연하게 행동할 여지는 적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전형적인 특성은 수의대와 의학 계열(의과대, 치과대)의 졸업생들에게서 잘 나타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일반적인 정형에서 크게 벗어나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는 법대 졸업생들을 들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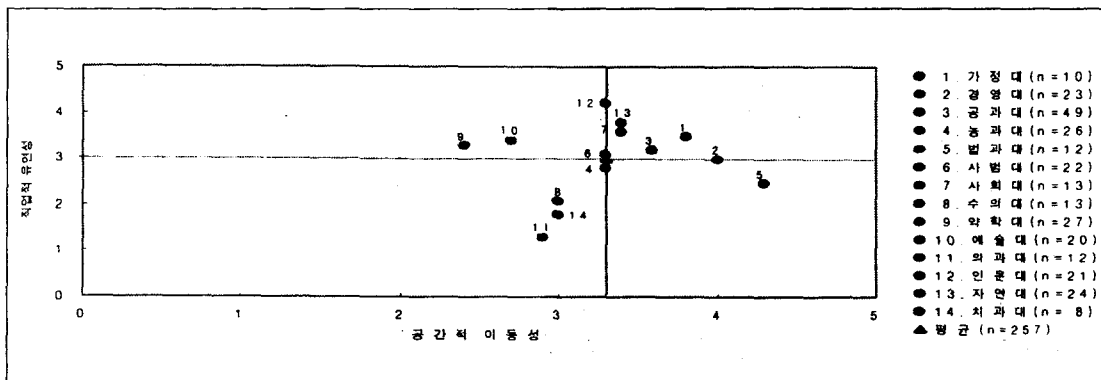


그림 3. 단과대학별 졸업생의 취업전략 비교

이들은 의학계열의 졸업생과 달리 매우 낮은 취업률을 보여주지만, 직업적 유연성이 아주 떨어지는 동시에 높은 공간적 이동의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끝으로 살펴 볼 논점은 전남대학 졸업생의 일반적인 취업전략이 지역발전에서 어떤 함의를 지니느냐이다. 분석 결과는 노동시장에서 취업기회가 양호한 전공(대학)분야의 졸업생들이 대학소재 지역의 국지적 노동시장을 넘어선 일자리 탐색을 선호한다는 점을 단적으로 말해준다. 대졸자들은 직업상의 기회를 대개 개인적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평가하고 있는데, 산업과 고용, 지역혁신 등과 결부된 여러 측면에서 지역사회에 필요한 졸업생들이 구직에 있어 높은 초(超)지역적 지향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는 이 점에서도 전남대학 졸업생의 취업지를 통해 이미 논증된 인적자본의 유출을 더해 고학력 인력의 축적이 이루어지는 않는 사회적 침식작용을 확인할 수 있다.

5. 결론

최근 들어 대졸자들은 유래 없는 취업난을 겪고 있다. 불투명한 경제환경 속에서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대졸자들의 취업기회는 한층 더 좁아지고 있다. 특히 대졸자의 실업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크게 악화되면서 이제 개개인이 직장을 얻지 못하는 단순한 차원을 넘어서서 사회와의 단절 등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실업사태는 장기적으로 인적자본을 손상시켜 국가경제 전반에 생산성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특히 대학은 교육을 통해 전문지식을 갖춘 졸업생들을 노동시장에 공급하는 핵심적인 조직체이다. 물론 대졸자의 취업난의 한 요인이 인력수급의 질적·양적 불일치에서도 연유하는 만큼, 대학에도 책임이 있

다. 그 동안 대학정원은 급격히 늘어나 고졸자의 대부분이 대학에 진학할 수 있게 되었으나 대학에서는 기업 또는 시장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취업대란 속에서 임금, 연령, 직종, 지역의 불일치는 악화되고 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이들의 취업문제는 대학은 물론이고 국가 또는 지역사회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대학이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연계 아래 지역발전을 유도하는 '모터'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대학에서 학업을 마친 졸업생들이 대학 소재 지역의 노동시장에 가능한 많이 편입되어 지역의 인적자본을 축적하는 동시에 노동력의 자질을 제고하고 지역내 순환을 강화하는데 있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대학이 지역사회에 고등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대졸자의 사회적 기대를 충족시키고 자아발전을 꾀할 수 있는 일자리를 지역사회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논의를 시작하였다. 그렇지 못할 경우 대학 진학기회가 보장됨으로써 학업기간 동안 학생들은 지역에 일시적으로 머물지 모르지만, 졸업 후에는 교육을 통해 성취한 능력과 자질에 부응하는 일자리를 찾아 타지나 심지어 외국으로 유출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주변부에 위치한 대학들은 대학 재학기간 동안 당해 지역에 잠재된 인적자본을 발굴하여 육성하는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단기적으로 진학에 따른 외지로의 인구유출을 유보시키거나 저지할지 모르나, 장기적으로는 타 지역으로의 두뇌유출(brain drain)을 조장하는 통로로 작용한다고 상정할 수 있다.

이러한 논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첫걸음으로서 본 연구는 전남대학을 사례로 하여 졸업생의 취업구조와 취업지, 그리고 취업을 위한 행동전략을 규

명하고자 했다. 연구결과를 몇 가지로 정리해보면, 첫째 전남대학의 취업률은 전체적으로 우리 나라 전체 대학의 평균적인 취업률 추이를 쫓아가고 있지만, 지방대학의 특성을 벗어날 수 없듯이 이와 적잖은 격차를 보여주는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한편으로 지난 수십 년 동안의 경기변화와 대졸자의 수급동향과 관련되어 있으나, 또 한편으로 경제구조상 주변 부적 성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대학 소재지역의 취약한 산업구조와 이에 따른 제한된 취업기회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취업자의 취업지 분포를 보면, (대)도시의 집중경향과 광주 및 전남지역과 수도권으로의 양극화현상이 현저하다. 반면 취업지로서 동부지역(강원도, 충청북도, 경상남·북도)에 대한 선호는 현저히 낮은 편이다. 또한 이러한 취업지의 분포패턴을 이들의 대학 진학시 출신지역과 비교해보면, 광주 및 전남 출신의 졸업생들이 학업을 마친 후 타 지역(특히 수도권)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비중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전남대학 졸업생의 취업전략(공간적 이동성과 직업적 유연성)에 있어 노동시장의 요구를 공간적 이동성을 통해 대처하려는 성향이 강한 것으로 파악된다. 물론 단과대학별로 이러한 두 지표의 지향 정도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노동시장에서 취업기회가 제한되면 될수록 직업적 유연성은 그 만큼 더 선호되는 반면, 노동시장에서 취업기회가 양호하면 양호할수록, 거주지의 교체(공간적 이동)의 행동전략에 적극 추구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결과적으로 전남대학 졸업생의 취업과 관련된 공간적 특성에서 양적·질적 측면에서의 인적자원의 유출의 일단을 찾아볼 수 있으며, 따라서 취약한 지역경제와 지역노동시장에 있어 전남대학 졸업생의 기여도나 견인차 역할은 제한적임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졸자의 취업특성이 지역발전에 미

치는 영향을 제한된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분석할 수밖에 없었다. 앞으로 대졸자의 취업구조와 그 공간적 특성을 지역노동시장과 지역발전의 측면에서 보다 심도 있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대졸 취업자의 출신지와 첫 취업지, 취업동기와 전략, 취업 후 전직 및 지리적 변동상황에 관한 정교한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의 주제를 다양한 유형의 대학(예컨대 상이한 교육목표, 입지적 유형에 따른)을 통해 분석하는 비교연구가 축적될 때, 대졸자의 취업과 관련된 대학의 지역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비로소 일관된 척도 위에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점은 차후의 연구 과제이기도 하다.

註

- 1) 예컨대 광주 및 전남의 경우를 살펴 볼 경우, 2000학년도 4년제 대학 및 전문대의 전체 모집정원 65,058명에서 9,992명(즉, 전체 모집정원의 15.4%)이 미충원된 것으로 조사되었다(광주일보 2000.3.3자).
- 2) 대단히 상대적인 개념이긴 하나, 일반적으로 취업자들이 노동시장의 여러 제약으로 인하여 학업을 통해 얻은 자질에 부응하는 못하는 일자리(숙련도도 떨어지고 저임금인 일자리)를 제공받을 경우를 말한다.
- 3) 수도권 대학의 경우, 서울대가 55.6%를 기록해 전국 평균을 밑돌았고 연세대 71.5%, 고려대 47.2%, 서강대 69.4%, 성균관대 62.7%, 이화여대 58.6%, 중앙대 66.7%의 취업률을 각각 기록하였다. 또 공주교대(99.6%)와 부산교대(99.5%), 인천교대(98.6%)를 제외한 광주교대 등 전국 8개 교대의 취업률은 모두 100%를 기록하였으며, 포항공대도 100%의 취업률을 보여 주었다.
- 4) 대학교육기회(의 격차)는 졸업 후 취업기회(의 격차)와 연관되어 있다. 이는 고교 졸업자의 대학진학시 대학선택단계에서부터 출신지와 지리적 인접성과 아울러 대학졸업 후 취업기회의 획득가능성을 고려하는 경향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특히 취업전망은 학생들의 대학(및 전공)선택에 중요한 결정요인이 되기 때문에, 대

학의 취학권 역시 노동시장의 지역적 상황과 밀접히 결부되어 있다. 따라서 이점을 보다 정교하게 분석을 위해서는 출신지(대학 소재 출신지와 여타 지역의 구분)와 취업지(대학 소재지와 여타 지역의 구분)간의 조합에 따른 유형화가 필요하다.

- 5) 취학권이신 신입생들의 출신지의 범위를 일컫는 것이나, 대학 당국의 입장에서는 학생선발과정에 있어 대학의 세력권이라고 할 수 있다.
- 6) 이러한 유연성의 준거들은 최근의 lean production, lean management, lean organization을 둘러싼 논의에 비추어 볼 때, 다소 전통적인 의미를 띠는 것은 분명하다. 오늘날 대졸자의 취업과 더불어 커리어패턴은 승진이나 안정된 고용보장, 전문적 자질보다는 전혀 새로운 형태의 유연성, 예컨대 다양한 분야에 걸친 폭넓은 업무처리능력, 혁신역량, 팀워크에의 적응력, 모험을 피하지 않는 태도(기업가정신), 자질을 꾸준히 재고할 수 있는 준비성 등에 의거하고 있다.

참고문헌

- 강원사회연구회, 2001, 강원교육과 인재양성: 현실과 방향, 서울: 한울.
- 김병규, 1993, "지방발전의 인재론," 동남개발연구원(편), 부산발전론: 국제화시대 지방의 발상과 전략, 부산: 부산일보사, pp.319-342.
- 노국향, 1997, "대학지원 양상에 기초한 한국 고등교육 인구의 분포 분석," 고등교육연구 9(1), pp.63-84.
- 박영한, 1995, "대학의 입지가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분석," 지리학논총 25, pp.1-18.
- 박영한, 1998, "대학과 지역사회의 결합에 관한 제도분석: 독일의 대학도시 뮌스터를 사례로," 지리학논총 31, pp.1-16.
- 박영한·조영국·안영진, 2001, "대학과 지역발전: 연구동향과 전망," 대한지리학회지 36(4), pp.418-433.
- 박찬석, 2002, "지방대학의 위기와 발전방향," 전남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편), 대학의 미래와 그 대응전략 - 지방대의 역할(전남대학교 개교 50주년 기념 대학발전 심포지엄), 광주, pp.29-34.
- 송태정, 2001, "대졸 취업문제 2007년까지 계속된다," LG 주간경제 649, pp.4-9.
- 임정덕·장영재, 1997, "지역 우수두뇌의 유출현상과 지역균형발전," 노동경제논총 20(1), pp.91-115.
- 전남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1997, 1997학년도 전남대학교 신입생 실태조사, 광주: 전남대학교.
- 전남대학교 학생처, 1992, 1991학년도 졸업생 취업상황 조사보고, 광주: 전남대학교.
- 정진화, 1996, 고학력화와 인력정책의 방향, 서울: 산업연구원.
- 조명래, 1998, "지방화 시대의 지역발전과 인재지역할당제 도입의 역할," 한국지역개발학회지 10(3), pp.1-18.
- 홍성우·이진철, 1998, 지역노동시장연구(III): 광주·전남지역,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 大學研究教育を考へる會(編), 2000, 大學の社會的責任: 大學における學問・教育・人材育成, 丸善株式會社, 東京.
- 北村修二, 1998, 世界の雇用問題, 東京: 大明堂.
- 天野郁夫, 1999, 大學 - 挑戰の時代, 東京: 東京大學出版會.
- 川田 力, 1992, "わが國における教育水準の地域格差: 大學卒業者を中心として," 人文地理 44(1), pp.25-45.
- 川田 力, 1993, "長野縣佐久地方における大學進學行動と大學新規卒業者の就業行動," 地理學評論 66A-1, pp.26-41.
- Beissinger, T. et al., 1997, "Herkunft und Verbleib von Absolventen der Universitaet Regensburg," in Moeller, J. et al., *Universitaet und Region - Studium, Struktur, Standort* (= Schriftenreihe der Universitaet Regensburg 25), Regensburg: Univeristaetsverlag Regensburg.
- Ermert, K. (ed.), 1997, Hochschule und Region - *Wirkungen und Wechselwirkungen*, Regburg-Loecum.
- Fassmann, H. and Meusburger, P., 1997, *Arbeitsmarktgeographie - Erwerbstaetigkeit und Arbeitslosigkeit im raeumlichen Kontext*, Stuttgart: Teubner(박영한·이정록·안영진 옮김, 2002, 노동시장의 지리학, 서울: 한울).

- Fluechter, W., 1990, *Hochschulstandorte und Bildungsverhalten unter Aspekten der Raumordnung in Japan* (Bochumer Geographischen Arbeiten 52), Paderborn: Ferdinand Schoeningh.
- Fromhold-Eisebith, M., 1992, "Regionalwirtschaftliche Effekte des Wissen- und Technologietransfer der Rheinisch-Westfaelischen Technischen Hochschule Aachen," *Geographische Zeitschrift* 80, pp.230-244.
- Harder, O., 1995, "Gruende fuer die Arbeitsplatzwahl von Fachhochschulabsolventen und Einflussmoeglichkeiten der regionalen Arbeitgeber - Das Beispiel der Fachhochschule Furtwangen, Schwarzwald," *Informationen zur Raumentwicklung* 3/1993, pp.165-170.
- Kwon, S.-C., 2001, "Migration and Regional Development: Human Capital Drain in Korea,"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4(1), pp.67-79.
- Meusburger, P., 1998, *Bildungsgeographie: Wissen und Ausbildung in der raeumlichen Dimension*, Heidelberg: Spektrum Akademischer Verlag.
- Park, C.-S., 1997, "Regional Development and Higher Education," *대한지리학회지* 32(4), pp.575-584.
- Rolfes, M. and Wenzel, H.-J., 1990, *Zur Regionalentwicklung von Hochschulausbildung und Akademischem Arbeitsmarkt sowie das Beispiel des westlichen Niedersachsens* (OSG-Materialien, Osnabruecker Studien zur Geographie 17), Fachgebiet Geographie, Osnabrueck.
- Scherff, J. et al., 1993, "Regionale Herkunft und Verbleib von Studenten - Eine Erhebung der Fachhochschule Furtwangen/Schwaerzwald," *Informationen zur Raumentwicklung* 3/1993, pp.157-164.
- Teicher, K. and Teichler, U., 2000, *Der Uebergang von der Hochschule in die Berufstaetigkeit in Japan*, Opladen: Leske+Budrich.
- Wenzel, H.-J., 1995, "Fachhochschuleabsolventen in laendlichen Gebieten und ihre Einfluss auf die endogene Regionalentwicklung in Westniedersachsen," in Heinritz, G.(ed.), *Beitraege zur regionalen Bildungsforschung* (Muenchener Geographische Hefte 72), Kallmuez: Verlag Michael Lassleben, pp.163-179.

Abstract

Employment Structure of University Graduates and Regional Development: A Case Study of Chonnam National University*

Young-Jin Ahn**

Regarding human capital development and the competitive advantage of regional economies, the transfer of local university graduates to the local labor market is a very important factor.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employment structure of university graduates and spatial patterns of their jobs, and the job search strategies to enter the employment system with a case study of Chonnam National University graduates. Because of the lagged industrial structure and peripheral location of Kwangju/Chonnam Province, the employment rate of the university graduates is generally lower than a national average. And there is a strong tendency of the concentration of job places on the metropolitan areas on the one hand, and on the Kwangju/Chonnam and Capital region of Korea on the other. University graduates in searching for jobs especially prefer spatial mobility toward job opportunities in other regions to promoting the flexibility of job qualifications to meet labor market demand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udy, we can identify a process of so-called 'brain drains' in both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terms, and conclude that the role of the Chonnam National University in promoting regional development potentials and local labor market conditions is quite restrictive.

Key words : local university, employment structure, labor market, brain drain, regional development

* This study was financially supported by Chonnam National University in the program year 2000.

** Full-time Instructor, Department of Geography, Chonnam National University(yjahn@chonnam.ac.kr)